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본문 <사도행전 8장 4절 ~ 25절>

[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증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흠어지게 되었지만,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7명의 집사로 선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못하게 된 것이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는 생각도 들고, 초대교회에 집사로 뽑힌 사람들이 사도들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 받게 된 것도 주목하게 됩니다.

빌립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내려와 사마리아 땅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자, 그를 따라다녔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의 임재를 보게 되자,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 핍박에 도망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시작된 핍박으로 흠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순교해야 할 자리만을 고집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도망 나왔다고 자책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데에 중심을 두었기에,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핍박에 대해서 떠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2. “성령님의 역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세례)하는 것이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들이었기에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던 시몬에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을 구하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일을 듣고 보았으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사마리아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결단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운데 임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제목>

1.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만 반응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되게 하소서.